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양승애*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COVID-19 pandemic

Yang, Seung A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ealth Science, Su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및 수도권에 있는 간호대학의 재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Google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2024년 5월 14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고, SPSS Statistics 25.0을 적용하여 기술 통계, t-검정, 일원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나이($F=10.602$, $p=.000$)와 학년($t=-2.334$, $p=.02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대학생활적응은 전공선택동기($r=.581$, $p<.010$), 자기효능감($r=.551$, $p<.010$), 회복탄력성($r=.699$, $p<.010$), 사회적 지지($r=.557$, $p<.010$)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스트레스($r=-.495$, $p<.010$)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회복탄력성($\beta=.366$, $p<.01$), 학업 스트레스($\beta=-.183$, $p<.05$), 전공선택동기($\beta=.168$, $p<.05$), 나이($\beta=.117$, $p<.05$)로 확인되었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56.7%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gree of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self-efficacy, resilience,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COVID-19 pandemic, and to identify th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factors affecting college life adjustment. The data of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May 14, 2024 to June 20, 2024 through a Google online questionnaire targeting 182 nursing student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nd descriptive statistics, Student'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linear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Statistics 25.0.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 analysis by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llege life adjustment by age ($F=10.602$, $p=.000$) and grade ($t=-2.334$, $p=.021$). College life adjustmen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with major selection motivation ($r=.581$, $p<.010$), self-efficacy ($r=.551$, $p<.010$), resilience ($r=.699$, $p<.010$), and social support ($r=.557$, $p<.010$), but a significant negative (-)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 ($r=-.495$, $p<.010$). The variables that affected college life adjustment were identified as resilience ($\beta=.366$, $p<.01$), academic stress ($\beta=-.183$, $p<.05$),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beta=.168$, $p<.05$), and age ($\beta=.117$, $p<.05$), and the explanatory power for college life adjustment was 56.7%. The finding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enhanced the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major selection motivation, self-efficacy, resilience,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ollege life adjustment

본 논문은 2022년 성신여자대학교 교내학술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 양승애(ewha63@sungshin.ac.kr)

접수일 2024년 07월 12일 수정일 2024년 07월 31일 심사완료일 2024년 08월 16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중·고등학교 때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시간 관리, 학점관리, 대인관계 등을 주체적으로 조절하며 사회인으로 해야 할 역할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1]. 대학생활적응은 낯선 대학 환경 속에서 학업 및 대인관계, 진로 선택과 취업 준비 등 다양한 대학 생활의 요구에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며[2]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한 학생은 높은 학업 동기,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형성함으로써 개인의 성장 기회가 되고 미래 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된다[3]. 그런데 2019년 12월에 발생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접촉 등의 사회적 안전을 위한 협조가 요구됨에 따라 대학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학생들이 대학에서 실질적인 캠퍼스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 우울감, 무기력, 분노, 혼란 등을 경험하였고[4] 또한 COVID-19 팬데믹 이전의 대학 생활에 적응한 재학생들의 경우 역시 갑작스러운 대학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적응이 요구되며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5]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이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COVID-19 팬데믹 상황을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학업 및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연구[6]뿐 아니라 COVID-19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대학 생활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자유로움과 편리성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연구[7]도 발표되었다. 따라서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임상 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활적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8]. 대학에 입학하기 전 전공을 선택하는 시점부터 대학생활적응은 시작된다. 간호학과는 다른 과에 비해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가능성이 크고 취업 안정성이 높은 학과로 알려져[9] 다른 전공학과에 비해 높은 입학 경쟁률을 [10]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간호학과는 높은 취업률만을 고려하여 본인의 적성이나 전공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지원한 경우, 전공 만족도

의 저하와 더불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11] 간호대학생의 전공과 대학생활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공 선택의 동기를 점검해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8].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믿음과 인식으로 [12] 대학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효능감 [13]이 부족한 학생들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8].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지닌 대상자는 자기 주위 환경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높은 적응력을 보이므로[14]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탄력성은 정신적인 면역력으로 외부 자극이나 역경에 대응하여 개인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가지 있는 경험으로 전환하는 개인 능력으로[15]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항력이 된다[16].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충동적 반응을 조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해서 대응책을 탐색하는 것이 회복탄력성이므로[17] 타전공 대학생들과 비교하면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엄격한 교육과정, 전공교과목의 방대한 학습량으로 인해 대학 생활에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대학과는 전혀 다른 조직체계인 병원이나 지역사회 등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18]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는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지원을 의미하며 다양한 스트레스 극복과 대처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19]. 과도기적 시기의 대학생들에게는 사회적 유대와 관계, 즉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인 적응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지원을 타인으로부터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감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0]. 따라서 졸업 후 간호대학생은 병원 또는 지역사회 등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직 간호

인으로서[21] 주위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요인들을 긍정적 측면에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22].

전문직 간호사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간호학과는 다른 과에 비해 교과목의 높은 난이도와 엄청난 양의 학업을 요구하고 있으며[23] 학과의 특성상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인해 대부분 간호대학생은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24]. 이에 따라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에도 학업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24] 또한 대학생활적응에도 학업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및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와 수도권에 소재한 2개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COVID-19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대학 생활을 시작하여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학 생활 경험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적합한 표본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power 3.1.9.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검정력 95%,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 크기 0.15, 예측 변수 6개로 산출한 결과[26] 연구에 필요한 적정 표본 수는 14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20%의 탈락률을 고려해 총 19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료 불충분으로 9부를 제외한 18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4년 5월 14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로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Google 문서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한 설문지로 URL 링크를 통해 수집하였다. 접속할 때 시작 화면에 연구의 취지, 내용, 방법에 관해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고 다음 화면으로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목적에만 활용할 것을 약속하였고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익명성은 보장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도중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참여 철회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 응답에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응답에 대한 답례로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2.4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 항목 구성은 일반적 특성 9문항, 전공선택동기 13문항, 자기효능감 23문항, 회복탄력성 24문항, 사회적 지지 25문항, 학업 스트레스 15문항, 대학생활적응 34문항을 포함하여 총 1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4.1 전공선택동기

본 연구에서 전공선택동기 수준의 측정을 위해 Jeong (2010)이 개발한 도구[27] Song(2013)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도구로 조사하였다[28]. 총 13문항으로

내재적 동기 8문항, 외재적 동기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데 높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전공선택 동기 정도가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Song(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2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4.2 자기효능감

Sherer 등(1982)이 사용한 설문을[29] Hong(199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0]. 총 23문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부정적인 문항(2, 5-7, 10-12, 14, 16-18, 20, 22)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1995)에서는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으며[30],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4.3 회복탄력성

Yang 등(2015)이 개발하고 타당성을 분석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15]. 이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7개 하위요인 즉, 자신감 3문항, 관계성 4문항, 긍정성 4문항, 대처 능력 2문항, 사회적 지지 4문항, 감정조절 능력 4문항, 조직적 스타일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부정적인 문항(9, 15)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높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ang 등(2015)에서 Cronbach's α 는 .84이었고[1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4.4 사회적 지지

Park(1985)이 개발한 척도를[31] Yu & Seol(2015)이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도구로 측정하였다[32]. 이 도구는 정서적 지지 7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u & Seol(2015)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94이었으며[32],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8이었다.

2.4.5 학업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한[33]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척도를 Shin(201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4]. 총 15문항으로 3개 하위영역 즉, 냉소주의 4문항, 정서 소진 5문항, 효능감 감소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긍정적인 문항(10~15)의 경우 역 환산 점수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Shin(2012)에서는 Cronbach's α 는 .87이었고[34]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2.4.6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수준의 측정을 위해 Park(201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5].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대인관계 9문항, 전공 만족 9문항, 전공 수월성 5문항, 대처 역량 5문항, 취업 준비 3문항, 학업 충실도 3문항을 포함하여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높은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 개발 시 Cronbach's α 는 .92이었고[3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검정과 일원 분산분석으로 산출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선행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간호학과 여학생이고, 나이는 평균 22.48세로 '21세 이하' 77명(42.3%), '22세~23세' 78명(42.9%), '24세 이상' 27명(14.8%)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 78명(42.9%)이었으며 '4학년'은 104명(57.1%)이었고 종교가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50명(27.5%),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32명(72.5%)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지각한 건강 상태의 경우 ' 좋음' 89명(48.9%), '보통' 73명(40.1%), '나쁨' 20명(11.0%) 순으로 나타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형태는 '자택' 59명(32.4%), '기숙사' 46명(25.3%), '자취' 75명(41.2%), '기타'는 2명(1.1%)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들의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은 '높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0명(49.5%), '보통' 87명(47.8%), '낮음' 8명(2.7%)이었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보통' 각각 84명(46.2%), '불만족' 14명(7.7%)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학업성적은 '높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41명(32.5%), '중간' 110명(60.4%), '낮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1명(17.0%)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정도

연구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 (N=1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s)	≤21	77(42.3)
	22~23	78(42.9)
	≥24	27(14.8)
	M±SD	22.48±2.33
Grade	Junior	78(42.9)
	Senior	104(57.1)
Religion	Yes	50(27.5)
	No	132(72.5)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89(48.9)
	Neutral	73(40.1)
	Bad	20(11.0)
Type of dwelling	Home	59(32.4)
	Dormitory	46(25.3)
	Live alone	75(41.2)
	Etc	2(1.1)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High	90(49.5)
	Medium	87(47.8)
	Low	8(2.7)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84(46.2)
	Neutral	84(46.2)
	Not satisfied	14(7.7)
Academic performance	High	41(22.5)
	Medium	110(60.4)
	Low	31(17.0)

<Table 2> Major selection motivation, Self-efficacy, Resilience,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ollege life adjustment of the participant (N=182)

Variables	M±SD	Min	Max	Range
Major selection motivation	3.71±0.66	1.23	5.00	1~5
Intrinsic motivation	3.69±0.83	1.00	5.00	1~5
Extrinsic motivation	3.73±0.71	1.20	5.00	1~5
Self-efficacy	3.38±0.50	1.70	4.70	1~5
Resilience	3.64±0.51	1.83	5.00	1~5
Social support	4.08±0.65	2.08	5.00	1~5
Academic Stress	2.67±0.43	1.73	3.80	1~4
College life adjustment	3.44±0.49	1.38	4.68	1~5

전공선택동기는 5점 만점에 평균 3.71±0.66점, 자기효능감은 평균 3.38±0.50 점, 회복탄력성은 평균 3.64±0.51점, 사회적 지지는 평균 4.08±0.65점, 학업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2.67±0.43점,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4±0.49점으로 분석되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공선택동기는 나이(F=7.506, 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21세 이하'인 대상자가 '22세~23세', '24세 이상'인 대상자보다 전공선택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회복탄력성도 나이(F=4.702, p=. 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21세 이하'인 대상자가 '22세~23세' 대상자보다 회복탄력성이 낮게 제시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나이(F=5.894, p=. 003)

와 건강 상태(F=4.389, p=. 01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21세 이하'인 대상자가 '22세~23세', '24세 이상'인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건강 상태에 따른 사후분석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 스트레스도 나이(F=3.495, p=. 03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후분석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활적응의 경우 나이(F=10.602, p=. 000)와 학년(t=-2.334, p=. 02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21세 이하'인 대상자가 '22세~23세', '24세 이상'인 대상자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고, 3학년의 경우 4학년 대상자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낮게 제시되었다.

<Table 3> Difference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Self-efficacy, Resilience,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 College life adjustment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jor selection motivation			Self-efficacy			Resilience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ollege life adjustment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Age(yrs)	≤21 ^a	3.49±.68			3.28±.53			3.50±.52			3.90±.63			2.77±.47			3.27±.52		
	22~23 ^b	3.84±.60	7.506* (.001)	a(b,c)	3.44±.46	2.884 (.058)	-	3.72±.48	4.702* (.010)	a(b)	4.20±.64	5.894* (.003)	a(b,c)	2.61±.41	3.495* (.032)	-	3.52±.44	10.602** (.000)	a(b,c)
	≥24 ^c	3.92±.6			3.40±.52			3.76±.48			4.27±.61			2.59±.32			3.71±.38		
Grade	Junior	3.62±.68	-1.450 (.149)		3.35±.49	-.732 (.473)		3.58±.49	-1.314 (.191)		3.98±.66	-1.778 (.077)		2.69±.45	.358 (.721)		3.35±.52	-2.334* (.021)	
	Senior	3.77±.64			3.14±.70			3.68±.52			4.16±.63			2.66±.41			3.52±.46		
Religion	Yes	3.80±.58	1.246 (.214)		3.39±.54	.274 (.784)		3.69±.53	.876 (.382)		4.17±.61	1.068 (.287)		2.65±.41	-.528 (.598)		3.51±.53	1.157 (.249)	
	No	3.67±.69			3.37±.49			3.62±.51			4.05±.66			2.68±.44			3.42±.48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a	3.66±.63			3.36±.51			3.58±.51			4.00±.68			2.65±.40			3.42±.51		
	Neutral ^b	3.75±.72	.381 (.683)	-	3.39±.49	.074 (.928)	-	3.72±.49	1.754 (.176)	-	4.25±.52	4.389* (.014)	-	2.65±.44	2.549 (.081)	-	3.53±.42	2.777 (.065)	-
	Bad ^c	3.75±.58			3.40±.53			3.58±.56			3.86±.83			2.88±.49			3.26±.62		
Type of dwelling	Home	3.66±.73			3.35±.51			3.66±.55			4.11±.65			2.67±.45			3.45±.42		
	Dormitory	3.77±.54	.395 (.757)	-	3.48±.50	.985 (.401)	-	3.65±.44	.297 (.828)	-	4.10±.62	.483 (.695)	-	2.64±.40	.229 (.876)	-	3.55±.41	1.705 (.168)	-
	Live alone	3.70±.67			3.35±.50			3.62±.53			4.10±.68			2.70±.44			3.37±.58		
	Etc	4.00±.54			3.07±.15			3.35±.32			3.59±.76			2.57±.33			3.81±.27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High	3.74±.66			3.40±.53			3.64±.51			4.13±.66			2.66±.46			3.46±.56		
	Medium	3.66±.66	.321 (.726)	-	3.35±.47	.326 (.722)	-	3.63±.51	.147 (.863)	-	4.03±.63	.520 (.595)	-	2.68±.39	.113 (.894)	-	3.45±.42	1.099 (.335)	-
	Low	3.72±.75			3.50±.71			3.76±.58			4.06±.100			2.75±.52			3.12±.36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3.66±.68			3.35±.55			3.57±.53			3.98±.71			2.66±.43			3.40±.52		
	Neutral	3.72±.64	.940 (.393)	-	3.41±.46	.358 (.699)	-	3.69±.49	1.480 (.230)	-	4.16±.59	2.028 (.135)	-	2.70±.42	.388 (.679)	-	3.50±.47	.949 (.389)	-
	Not satisfied	3.91±.65			3.34±.52			3.71±.52			4.25±.51			2.60±.49			3.41±.45		
Academic performance	High	3.62±.68			3.56±.48			3.70±.46			4.04±.67			2.77±.46			3.40±.45		
	Medium	3.75±.61	.597 (.551)	-	3.39±.48	.063 (.939)	-	3.62±.52	.349 (.706)	-	4.06±.65	.934 (.395)	-	2.65±.40	1.369 (.257)	-	3.45±.51	.248 (.781)	-
	Low	3.68±.79			3.37±.64			3.61±.56			4.23±.62			2.63±.47			3.48±.49		

*p<0.05, ** p<0.01

3.5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학생활적응은 전공선택동기($r=.581, p<.010$), 자기효능감($r=.551, p<.010$), 회복탄력성($r=.699, p<.010$), 사회적 지지($r=-.557, p<.010$)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스트레스($r=-.495, p<.010$)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Major selection motivation, Self-efficacy, Resilience,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 College life adjustment

(N=182)

Variable	Major selection motivation	Self-efficacy	Resilience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Major selection motivation	1				
Self-efficacy	.480** (.000)	1			
Resilience	.613** (.000)	.697** (.000)	1		
Social support	.466** (.000)	.413** (.000)	.726** (.000)	1	
Academic stress	-.404** (.000)	-.451** (.000)	-.443** (.000)	-.289** (.000)	1
College life adjustment	.581** (.000)	.551** (.000)	.699** (.000)	.557** (.000)	-.495** (.000)

* $p<.05$, ** $p<.01$

3.5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차이를 나타낸 나이와 학년 그리고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학업적 스트레스를 설정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702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시켰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84~3.961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회복탄력성($\beta=.366, p<.01$), 학업적 스트레스($\beta=-.183, p<.05$), 전공선택동기($\beta=.168, p<.05$), 나이($\beta=.117, p<.05$)로 확인되었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56.7%였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N=182)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510	.343		4.401	.000
Age	.081	.038	.117	2.118	.036
Grade	.050	.053	.051	.957	.640
Major selection motivation	.125	.048	.168	2.639	.009
self-efficacy	.068	.069	.070	.984	.326
Resilience	.352	.094	.366	3.754	.000
Social support	.073	.055	.097	1.325	.187
Academic stress	-.210	.065	-.183	-3.214	.002

$R^2=.583$ Adjusted $R^2=.567$ $F=34.805$ $P<.001$
VIF=1.184-3.961 Durbin-Watson=1.702

* $p<.05$, ** $p<.01$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적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의 정도와 변수간의 상관관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1(± 0.66)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n과 Lee(2021)의 3.77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8].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각각 3.69점, 3.73점으로 An과 Lee(2021)의 3.75점, 3.79점과 비교했을 때 [8] 거의 유사한 점수를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는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나이가 '21세 이하'인 경우 '22세~23세' 그리고 '24세 이상'의 대상자보다 낮은 점수를 제시하여 선행연구[8]의 보고와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나이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수준이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지역과 학년을 고려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 적성과 흥미를 포함하는 내재적 동기와 직업 및 수입의 안정성이나 합격을 고려한 성적에 부합한 대학 진학 등 외재적 동기를 포

함하는 전공선택동기와 나이를 고려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간호대학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38(± 0.50)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An과 Lee(2021)의 3.46 점보다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냈으나[8] Chun과 Cho(2016)의 3.23점, Kim, Kim, & Lee(2020)의 3.07점, Jung과 Chae(2018)의 2.95 점[16, 23, 24]보다 높게 나타나 COVID-19 팬데믹 이전 연구 결과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제시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3학년보다 4학년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진로와 취업, 간호사 자격 국가시험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으로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64(± 0.51)점으로 제시되었고, 같은 도구를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ak과 Kim(2021)에서 제시한 3.63점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나[36] Chun과 Cho(2016)의 3.49 점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16] COVID-19 팬데믹 이전 연구 결과보다 회복탄력성 점수도 높게 제시되었다. 회복탄력성은 일반적 특성 중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21세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22세~23세'인 경우 대상자보다 낮은 점수를 제시하였다.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어려운 대학 생활 환경을 극복하고 졸업 후에 전문직 간호사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37]. 그러므로 간호대학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4.08(± 0.65)점을 제시하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19, 38]에서 각각 3.92점, 4.11점을 제시하여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21세 이하'인 경우 '22세~23세' 그리고 '24세 이상'의 대상자보다 낮은 점수를 제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년 초기부터 지도교수와의 개별적 상담, 선배와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동료나 선·후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과 내 동아리 활동 등의 대학 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건강 상태에 따른 사후분석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와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20]. 이는 대상자와 측정 도구에 따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제시되므로 추후 동일한 도구를 적용한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2.67(± 0.43)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Kim(2018)의 2.34점[39], Kim(2022)의 2.21점[40]들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OVID-19 팬데믹과 상관없이 간호학 교과목의 높은 난이도와 과중한 학업량으로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 중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8]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 사후분석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이에 증가함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타나 추후 연구를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44(± 0.49)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38]의 3.48점, Jung과 Chae(2018)의 3.28점[24], Choi와 Chae(2018)의 3.36점[41]으로 COVID-19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일반적 특성 중 나이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제시하였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 Yoo, & Park(2016)의 선행 연구에서 대학생생활만족도의 경우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제시한 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4년제 간호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3학년부터는 전공교과목과 임상실습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3학년의 경우 임상실습이 시작됨에 따라 실습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생활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는데[9] 본 연구 결과와 일부 유사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선택동기가 학과에 대한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8, 27, 28]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고[13, 16, 23, 24],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고[16, 36]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다고 제시한 선행연구[17, 19, 20, 38, 41]를 통해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수준이 낮다[13, 24, 25, 38]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 학업 스트레스, 전공선택동기, 나이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6.7%로 확인되었다. 회복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이 이론 수업이나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힘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 성숙한 경험으로 전환하게 해준다[13]. 또한 회복탄력성은 기질적 특성이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향상할 수 있으므로[42] 간호교육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43].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공선택동기가 취업 전망에 의한 그룹에 비해 전공선택동기가 본인의 적성 또는 흥미에 의한 그룹 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가 0.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학과 전공선택동기를 고려한 대상자그룹을 설정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할 수 있도록[9]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타 전공 학생보다 간호대학생은 전공교과목의 과중한 학습량, 이론과 임상실습 병행, 그리고 간호사 국가시험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다[44]. 간호대학생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학업에 임하게 하려면 지속해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학과 차원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과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5].

COVID-19 팬데믹 기간 대학 생활을 시작한 대학생들이 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위주의 교육을 받았고 교수와 학생 간 상호교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46]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된 교육 환경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업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강화하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선택동기는 평균 3.71 ± 0.66 점, 자기효능감은 평균 3.38 ± 0.50 점, 회복탄력성은 평균 3.64 ± 0.51 점, 사회적 지지는 평균 4.08 ± 0.65 점, 학업 스트레스는 평균 2.67 ± 0.43 점,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44 ± 0.49 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공선택동기는 나이($F=7.506$,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제시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21세 이하'인 대상자가 '22세~23세', '24세 이상'인 대상자보다 전공선택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회복탄력성도 나이($F=4.702$, $p=.010$)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21세 이하'인 대상자가 '22세~23세' 대상자보다 회복탄력성이 낮게 제시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나이($F=5.894$, $p=.003$)와 건강 상태($F=4.389$, $p=.014$)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21세 이하'인 대상자가 '22세~23세', '24세 이상'인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건강 상태에 따른 사후분석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 스트레스도 나이($F=3.495$, $p=.032$)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후분석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활적응의 경우 나이($F=10.602$, $p=.000$)와 학년($t=-2.334$, $p=.02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21세 이하'인 대상자가 '22세~23세', '24세 이상'인 대상자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고, 3학년의 경우 4학년 대상자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낮게 제시되었다.

셋째, 대학생활적응은 전공선택동기($r=.581$, $p<.010$), 자기효능감($r=.551$, $p<.010$), 회복탄력성($r=.699$, $p<.010$), 사회적 지지($r=.557$, $p<.010$)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스트레스($r=-.495$, $p<.010$)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회복탄력성($\beta=.366$,

$p < .01$), 학업적 스트레스($\beta = -.183$, $p < .05$), 전공선택 동기($\beta = .168$, $p < .05$), 나이($\beta = .117$, $p < .05$)로 확인되었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56.7%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회복탄력성 강화와 전공선택 동기 및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고려한 나이별 대학생활적응 증재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4년제 간호대학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추후 지역 범위와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고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비교하는 종단적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W. Bang & G. P. Cho,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6, No.4, pp.285-304, 2020.
- [2] K. M. Lim,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 26, No. 3, pp.127-141, 2019.
- [3] J. G. Kim, J. W. Lee & G. H. Lee. (2015). Relationships between Compromise Types of Preferred University and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2, No. 2, pp.249-269, 2015
- [4] H. J. Yang,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emo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elf-elasticity of college freshmen in COVID-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3, pp.75-81, 2020.
- [5] H. J. Choi,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6, pp.68-77, 2017.
- [6] K. A. Lee & H. W. Son, A study on the college adaptation and core competences of students in post corona er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5, pp.239-254, 2021.
- [7] J. H. Jo & Y. R. Lee, A Study on the Adaptation and Growth of University Students with the Change of University Life in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9, No. 5, pp.255-282, 2022.
- [8] H. R. An & J. Y. Le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VID-19,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3, pp.34-45, 2021.
- [9] Y. J. Kim, H. N. Yoo & M. J.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10, pp.261-270, 2016
- [10]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Online)*, 2023 <https://kess.chedi.re.kr/publ/view?survSeq=2023&publSeq=2&menuSeq=3895&itemCode=02&language=en>
- [11] M. J. Park, Y. L. Ham & D. N. Oh, Levels and Their Correlations of Decision-Making-Competen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in Fresh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4, pp.327-337, 2012.
- [12] S. O. Park, *Self-efficacy(Korean Edition)*. Seoul :Park Young Story, 2018.
- [13] H. J. Choi &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2, pp.261-268, 2012.
- [14]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191-215, 1977.
- [15] Y. H. Yang, E. M. Kim, M. Yu, S.M. Park & H.Y. Lee,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7, no. 3, pp. 337-346., 2015.
- [16] I. H. Chun & J. Y.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elf-efficacy, 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6, no. 1, pp. 49-60. 2016.
- [17] Y. S. Park & S. H. Jang,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Communication Style on Stress Coping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0, no. 12, pp.555-566, 2020.
- [18] S. H. Hong, J. S. Kim, & D. B. Ju, The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443-450, 2020.
- [19]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5, pp.2178-2186, 2013.
- [20] S. Y.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11, No.1, pp.93-115, 2010.
- [21] S. H. Park & E. K. Byun, Factors influencing the mental health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2, pp.8284-8291, 2015.
- [22] J. Y. Park, & S. M. Park, Influence of college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velopment level of college students who majors in health or social welfare, The Korean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 Vol.49, No.2, pp.180-186, 2017.
- [23] J. K. Kim, W. J. Kim & S. J. Lee, Correlation of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7, pp.120-126, 2020.
- [24] H. J. Jung & M. J. Cha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8, pp.403-417, 2018.
- [25] N. H. Cha,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7, no. 2, pp.124-131, 2016.
- [26] H.C. Kang, K.P. Yeon & S.T. Han, A Review on the Use of Effect Size in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5, no.5, pp.641-64, 2015.
- [27] B. Y. Jeong, (2010).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2010.
- [28] Y. J. Song, (2013).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 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2013.
- [29] M. Sherer, J.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 B. Jacob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pp.663-671, 1982.
- [30] H. Y. Hong,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5.
- [31]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985.
- [32] E. K. Yu & H. S. Seol, Factorial Structure of the Social Support Scale, Survey research, vol.16, no.1, pp.155-184, 2015.
- [33] W.B. Schaufeli, I.M. Martinez, A.M. Pinto, M. Salanova, & A.B. Bakker,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3, No.5, pp.464-481, 2002.
- [34] D.W. Shin, Effects of the Perceptions of Parents' Expectations for the Future Careers of Children on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2.
- [35] S.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Chungnam, 2016.
- [36] Y. B. Kwak & Y. H. Kim,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4, pp. 1905-1916. 2021.
- [37] J. R. Lim & S. Y.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Stres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10, pp. 301-308. 2019.
- [38] M. J. Seo,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Their Adaptation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ungnam, 2019.
- [39] J.H. Kum,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0, pp.325-338, 2018.
- [40] I.G. Kim, Nursing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cademic Stress, Depression, Ego-resilie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gju, 2022.
- [41] Y. H. Choi & M. J. Chae,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8, pp.419-432, 2018.
- [42] E. S. Hong,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1 No. 2, pp.45-67, 2006.
- [43] M. McAllister & J. McKinnon, The importance of teaching and learning resilience in the health disciplines: a critical of the literature, Nurse Education Today, Vol. 29 No. 4, pp.371-379,2009.
- [44] M. H. Jeong, M. 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2, pp.170-177, 2006.
- [45] Y.S. Kim, Academic stress, Daytime sleepiness, Depression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5, pp. 867-883, 2018.

- [46] S. A. Choi, M. H. Ryu, J. H. Yoo, & S. H. Park,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Major, and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in COVID-19 Crisis Situ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5, no. 1, pp. 333-346, 2023.

양 승 애(Seung-Ae Yang)

[종신회원]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0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85년 2월 ~ 2004년 3월 : 삼성제일병원
- 2004년 4월 ~ 2007년 1월 :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조교수
- 2007년 2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교육